

성인 자녀의 노인학대 인식과 부양 스트레스

장희경¹ · 김혜영²

김천과학대학교 간호학과¹, 가톨릭상지대학교 간호학과²

Elder Abuse Perception and Caregiving Stress of the Adult Caregivers

Jang, Hee Kyoung¹ · Kim, Hye Young²

¹Department of Nursing, Kimcheon Science College, Gimcheon

²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Sangji College, Andong,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of the elder abuse perception with the caregiving stress of adult caregivers and to investigate influencing factors on them.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398 adults aged 30-65, and analyzed with the SPSS/WIN program. **Results:** In the elder abuse perception, there were differences in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job, person to be taken care of, age of elderly mother, duration of caregiving, economic status and health status of elderly parents. As for the caregiving stress, there were differences in age, marital status, income, health status, relationship with the elder, person to be taken care of, economic status and health status of elder parents. Influencing factors on the elder abuse perception included caregiving stress, education, marital status, health status of elders, and economic status of parents (30%). On the caregiving stress, elder abuse perception, economic status of elders, and relationship between caregivers and elders were influencing factors (24%).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eeded to develop a nursing program to prevent elder abuse and to decrease caregiving stress in caregivers. In addition, it should be considered in tandem with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that were found in this study.

Key Words: Aged, Elder abuse, Nursing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사회와 가족의 부양에 의존도가 높은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인학대 가능성이 높은 취약 노인수도 함께 증가시키고 있다(Song,

2005). 2009년 실시된 전국 노인 6,745명 대상의 노인학대 실태조사에서는 7명 중 1명 꼴인 13.8%가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SA], 2010). 또한 2011년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학대 사례는 8,603건으로 2010년도 7,503건에 비해 14.7% 증가하였으며, 2008년 2,369건, 2009년 6,159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주요어: 노인, 노인학대, 간호

Corresponding author: Kim, Hye Young

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Sangji College, 45 Sangji-gil, Andong 760-711, Korea.

Tel: +82-10-3806-5190, Fax: +82-54-853-3260, E-mail: hye268@csj.ac.kr

- 이 논문은 제1저자 장희경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 This article is a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Keimyung University.

투고일: 2013년 7월 25일 / **심사완료일:** 2013년 9월 15일 / **게재확정일:** 2013년 9월 24일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Welfare [MHW], 2011). 또한 우리나라 노인들은 학대사건에 가족의 사람을 개입시키는 것을 꺼리고, 학대 피해노인의 62.8%는 학대 사실을 끝까지 참고 도움을 청하는 것에 소극적인 것을 감안한다면 더 많은 노인학대 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Jung & Yun, 2012; Ko, 2010a).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노인학대 문제에 대해 1970~80년대부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여, 노인학대의 발생원인과 실태 등에 대한 폭넓은 조사연구와 함께 국가와 민간부문에서 노인학대의 문제를 예방·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과 서비스를 개발·실시하고 있다(Dong & Simon, 2013; Kwon, 2004).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학대 문제는 1980년대까지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매우 꺼리는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인하여 은폐된 사회문제였다. 1997년 노인학대를 가족폭력의 일환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Bang, 2009; Ko, 2010b).

노인학대 사례의 대부분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부양과정에서 가족들에 의한 학대가 빈번하다(Ko, 2010a). 또한 가족들은 노인의 신체적, 인지적 기능손상으로 부양자의 부담이 높을 때 수발에 따른 신체적 구급이나 권리침해를 한 경우 노인학대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Park & Youn, 2001), 이러한 주부양자들이 노인학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는 노인학대 행동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의사결정 판단에 영향을 미치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중재 접근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Lee & Lee, 2007).

한편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으로 의존적인 노인 증가는 가정내 구성원들의 부양 스트레스를 증가시켰으며,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인부양 지원의 일환으로 2008년 7월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10년 현재 전체 노인인구 중 5.6%만 수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MHW, 2010). 산업화된 현대사회에서 가족부양기능의 약화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인과 함께 동거하는 경우는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노인의 건강상태가 좋아지지 않았을 때 도와주는 일차적 지지 체계로서의 가족 역할과 부양책임은 가중되고 있다. 노인을 부양하는 동안 가족이 경험하는 이러한 부담감은 부정적 경험으로 가족구성원 간의 부정적 관계를 형성하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대상자에게는 노인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Fox, 2012; Johannesen & LoGiudice, 2013; Song, 2005). 또한

노인학대의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부양과정에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로 인한 경우가 가장 빈번하다(Ko, 2010a). 따라서 가정 내 주 부양자에 의한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이들의 부양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현실성 있는 사회적 지지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학대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줄이고, 가족의 부양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간호중재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자녀의 노인학대 인식과 부양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고, 노인학대 인식과 부양 스트레스와의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부양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통합적 간호중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목적은 성인자녀의 노인학대 인식과 부양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고, 노인학대 인식과 부양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및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과 부양 스트레스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노인학대 인식과 부양 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노인학대 인식과 부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성인자녀의 노인학대 인식과 부양 스트레스를 파악하고, 노인학대 인식과 부양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및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D시에 거주하는 만 30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남녀로, 현재 부모를 모시고 있거나 혹은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으면서, 본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본 연구표본의 크기 결정은 G*Power 3.1.3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으로 독립변수 16개, 유의수준($\alpha = .05$), 검정력($1-\beta = .95$), 효과크기($f^2 = .10$)일 때 필요한 최소한의 표본 수는 298명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398명 대상자는 연구를 위해 충분한 크기로 파악된다.

3. 연구도구

1) 노인학대 인식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성인자녀의 노인학대 인식을 측정한 도구는 Moon과 Williams (1993)가 개발하고, Yoo와 Kim (2004)이 번역한 사례 12개 중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는 1개의 성적학대의 사례를 제외한 11개의 사례를 사용하였다. 11개의 사례는 신체적 학대 영역 사례가 3건, 정서적 학대 영역 사례가 4건, 재정적 학대 영역 사례가 2건, 방임적 학대 영역 사례가 2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시된 사례는 가상의 노인학대 상황이 제시되어 있고, 학대 피해자인 노인과 부양자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 행위의 경중 및 행위가 발생된 배경과 같은 상황변수가 추가되어 있어서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설명에 국한된 노인학대 도구들보다 실제적으로 노인학대 사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노인학대 인식을 측정하는데 유효하다(Bang, 2009).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1점: 전혀 학대가 아니다, 2점: 학대라고 보기 어렵다, 3점: 모르겠다, 4점: 약간의 학대이다, 5점: 확실한 학대이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11점에서 최고 5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학대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Yoo와 Kim (2004)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9$ 로 나타났다.

2) 부양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부양 스트레스를 측정한 도구는 Lee (1991)와 Song (1993)의 부양 스트레스 도구를 Joo (2006)가 통합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총 24문항으로서, 사생활의 제약 스트레스 9문항,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9문항, 경제적 스트레스 4문항, 죄책감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별로 그렇지 않다, 3점: 그저 그렇다, 4점: 약간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24점에서 최고 1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양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Joo (2006)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8$ 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1년 4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시되었다. 자료수집을 위해 D시에 소재한 1개의 주부대학, 1개의 스포츠 센터, 2개의 종교시설(교회, 성당)에 직접 방문하여 기관장과 담당자에게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자료수집 허락을 받았다. 대상자에게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 취지, 비밀보장, 연구참여 거부 권리, 설문지 기재요령을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대상자가 설문지를 자가 기입하여 설문지를 마무리하면 연구자가 즉시 회수하였다. 자료수집 장소는 해당시설 상담실이나 교육장에서 하였으며 설문지 소요시간은 약 15~20분이었다. 총 415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그 중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한 설문지 16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98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7.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부양 관련 특성 및 노인학대 인식과 부양 스트레스 수준은 실수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부양 관련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과 부양 스트레스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Scheffé test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노인학대 인식과 부양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였으며, 노인학대 인식과 부양 스트레스에 영향요인을 단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성별은 여자 317명(79.6%)이 남자 81명(20.4%)보다 많았으며,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42.53세였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359명(90.2%)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정도는 대졸 이상이 266명(66.8%)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대상자의 42.0%가 주부였다. 가족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129명(32.4%)으로 가장 많았다. 자녀수는 3명 이상이 235명(59.1%)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2. 대상자의 부양 관련 특성

대상자의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다’가 237명(59.5%)으로 가장 많았다. 노부모와의 관계는 며느리가 173명(43.5%), 딸이 130명(32.7%)이었으며, 현재 노부모를 함께 부양하는 경우가 195명(49.0%), 노모만 부양하는 경우가 173명(43.4%)이었다. 노부모 동거여부에서는 동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267명(67.1%)으로 더 많았다. 노부의 평균 연령은 68.7세, 노모의 평균 연령은 70.5세이었으며, 현재까지 노부모 부양기간은 평균 3.8년으로 나타났다. 노부모 경제상태는 ‘자식 도움없이 생활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95명(49.0%)으로 가장 많았으며, 노부모 건강상태는 ‘보통이다’가 146명(36.7%), ‘건강한 편이다’가 142명(35.7%)이었다(Table 1).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과 부양 스트레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 차이를 확인한 결과, 연령($F=3.91, p=.009$), 결혼 상태($F=21.29, p<.001$), 최종학력($t=2.39, p=.018$), 직업($F=5.82,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50대에서 노인학대 인식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으며, 기혼인 경우가 미혼인 경우보다 노인학대 인식이 높았다. 또한 고졸 이하인 경우가 대졸 이상인 경우보다 노인학대 인식이 높았으며, 직업에서는 주부에서 노인학대 인식 수준이 가장 높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양 스트레스 수준을 확인한 결과, 연령($F=13.84, p<.001$), 결혼상태($F=5.16, p=.006$), 가족월평균 소득($F=3.80, p=.0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40대에서 부양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이혼이나 사별한 경우가 미혼 또는 기혼인 경우보다 부양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또한 가족월평균 소득이 100~200만원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400만원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보다 부양 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Table 2).

4. 대상자의 부양 관련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과 부양 스트레스

대상자의 부양 관련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 차이를 확인한 결과, 본인의 건강상태($F=16.72, p<.001$), 현재 부양 대상자($F=2.62, p=.034$), 노모 연령($F=10.01, p<.001$), 부양기간($F=4.94, p=.008$), 노부모 경제상태($F=4.92, p=.00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aregiving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39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Gender	Male	81 (20.4)
	Female	317 (79.6)
Age (year)		42.5±10.14
	30~39	179 (45.0)
	40~49	100 (25.1)
	50~59	97 (24.4)
	≥60	22 (5.5)
Marital status	Single	5 (1.3)
	Married	359 (90.2)
	Bereaved or divorced	34 (8.5)
Education	≤ High school	132 (33.2)
	≥ College	266 (66.8)
Job	Professional/office	150 (37.7)
	Service/sale/trade	46 (11.6)
	Daily/unemployed	35 (8.8)
	Housewife	167 (42.0)
Monthly income (10,000 won)	< 100	20 (5.0)
	≥ 100~< 200	58 (14.6)
	≥ 200~< 300	100 (25.1)
	≥ 300~< 400	129 (32.4)
	≥ 400	91 (22.9)
Number of child (person)	1	54 (13.5)
	2	109 (27.4)
	≥ 3	235 (59.1)
Health status	Very healthy	61 (15.3)
	Healthy	237 (59.5)
	moderate	69 (17.4)
	Unhealthy	31 (7.8)
Relation with the elder	Son	78 (19.5)
	Daughter	130 (32.7)
	Daughter-in-law	173 (43.5)
	Son-in-law	17 (4.3)
Person to be taken care of	Both of elderly parents	195 (49.0)
	Only elderly father	30 (7.6)
	Only elderly mother	173 (43.4)
Living with the elder	Yes	131 (32.9)
	No	267 (67.1)
Elderly father age (year)		68.7±8.15
	60~69	306 (76.9)
	70~79	62 (15.6)
	≥ 80	30 (7.5)
Elderly mother age (year)		70.5±10.68
	60~69	219 (55.0)
	70~79	83 (20.9)
	≥ 80	86 (24.1)
Duration of caregiving (year)		3.8±8.51
	≤ 1	283 (71.2)
	2~9	79 (19.8)
	≥ 10	36 (9.0)
Economic status of elderly parents [†]	CDO	44 (11.1)
	PDO	90 (22.6)
	IDO	195 (49.0)
	ETG	69 (17.3)
Health status of elderly parents	Very healthy	32 (8.0)
	Healthy	142 (35.7)
	Moderate	146 (36.7)
	Unhealthy	56 (14.1)
	Very unhealthy	22 (5.5)

CDO.=completely dependent on their family's help; PDO.=partially dependent on their family's help; IDO=independent on their family's help; ETG=enough to give help for their family.

[†] Economic status of elderly parents.

Table 2. Comparison of Elder Abuse Perception and Caregiving Str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398)

Characteristics	Categories	Elder abuse perception			Caregiving stress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2.03±0.49	-1.95	.052	2.32±0.47	0.89	.370	
	Female	2.16±0.53						
Age (year)	30~39 ^a	2.09±0.39	3.91	.009	2.24±0.48	13.84	< .001 b > c	
	40~49 ^b	2.08±0.62						
	50~59 ^c	2.30±0.63						
	≥60 ^d	2.09±0.55						
Marital status	Single ^a	1.61±0.24	21.29	< .001	2.27±0.70	5.16	.006	
	Married ^b	2.19±0.51						b > a, c
	Bereaved or divorced ^c	1.63±0.49						
Education	≤ High school ^a	2.24±0.65	2.39	.018	2.28±0.52	0.18	.856	
	≥ College ^b	2.08±0.65						
Job	Professional/office ^a	2.02±0.46	5.82	.001	2.26±0.53	0.23	.879	
	Service/sale/trade ^b	2.07±0.37						a < d
	Labor/unemployed ^c	2.14±0.36						
	Housewife ^d	2.26±0.63						
Monthly income (10,000 won)	< 100 ^a	2.07±0.41	0.99	.410	2.09±0.34	3.80	.005 b > e	
	≥ 100~< 200 ^b	2.14±0.51						
	≥ 200~< 300 ^c	2.07±0.33						
	≥ 300~< 400 ^d	2.13±0.64						
	≥ 400 ^e	2.21±0.55						
Number of child (person)	1	2.05±0.45	0.80	.452	2.26±0.54	1.01	.399	
	2	2.15±0.37						
	≥ 3	2.15±0.61						

노부모 건강상태($F=9.26,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대상자 건강상태가 건강하거나 혹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 노인학대 인식이 낮은 편이었으며, 노부만 모시고 있는 경우가 노인학대 인식이 가장 낮았다. 또한 노모의 연령이 60대인 경우, 부양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노인학대 인식이 유의하게 낮았다. 노부모의 경제상태가 자식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노부모의 건강상태가 매우 건강하지 않은 경우의 노인학대 인식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

대상자의 부양 관련 특성에 따른 부양 스트레스 수준을 확인한 결과, 건강상태($F=18.96, p<.001$), 노부모와의 관계($F=3.44, p=.009$), 현재 부양대상($F=6.36, p<.001$), 노부 연령($F=6.17, p=.002$), 노부모 경제상태($F=9.32, p<.001$), 노부모 건강상태($F=7.13,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대상자 본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경우 부양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노부모와의 관계에서 사위라고 응답한 경우 부양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았다. 현재 부양 대상이 노모만 모시고 있는 경우 부양 스트레스 수

준이 가장 높았으며, 노부의 연령이 60대인 경우 부양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았다. 노부모의 경제상태에서 자식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에 부양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으며, 노부모의 건강상태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혹은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경우 부양 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3).

5. 대상자의 노인학대 인식과 부양 스트레스와의 관계

대상자의 노인학대 인식과 부양 스트레스 수준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40, p<.001$)가 있었다. 즉 대상자의 노인학대 인식이 높을수록 부양 스트레스 수준은 낮았다 (Table 4).

6. 대상자의 노인학대 인식과 부양 스트레스에 영향 요인

대상자의 노인학대 인식과 부양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Table 3. Comparison of Elder Abuse Perception and Caregiving Stress by Caregiving Characteristics (N=398)

Characteristics	Categories	Elder abuse perception			Caregiving stress		
		M±SD	t or F	p	M±SD	t or F	p
Health status	Very healthy	2,21±0,69	1.72	.063	1,93±0,52	18,96	< .001 a < b, c, d
	Healthy	2,19±0,46			2,39±0,47		
	moderate	2,13±0,40			2,31±0,38		
	Unhealthy	2,06±0,54			2,97±0,61		
Relation with the elder	Son	2,11±0,50	0,63	.641	2,18±0,47	3,44	.009 a, b < d
	Daughter	2,15±0,54			2,21±0,45		
	Daughter-in-law	2,14±0,53			2,33±0,54		
	Son-in-law	2,10±0,61			2,57±0,63		
Person to be taken care of	Both of elderly parents	2,16±0,37	2,62	.034 a, c > b	2,17±0,45	6,36	< .001 a < c
	Only elderly father	1,92±0,46			2,19±0,28		
	Only elderly mother	2,15±0,65			2,38±0,55		
Living with the elder	No	2,21±0,69	1,96	.051	2,29±0,69	0,62	.535
	Yes	2,10±0,42			2,26±0,42		
Elderly father age (year)	60~69	2,13±0,55	1,78	.169	2,12±0,52	1,17	.142
	70~79	2,11±0,46			2,24±0,50		
	≥80	2,31±0,53			2,17±0,33		
Elderly mother age (year)	60~69 ^a	2,05±0,44	10,01	< .001 a < b	2,24±0,49	0,97	.378
	70~79 ^b	2,35±0,70			2,33±0,53		
	≥80 ^c	2,16±0,53			2,30±0,54		
Duration of caregiving (year)	≤1 ^a	2,09±0,43	4,94	.008 a < c	2,28±0,48	1,49	.226
	2~9 ^b	2,21±0,77			2,33±0,59		
	≥10 ^c	2,35±0,57			2,15±0,54		
Economic status of parents [†]	CDO ^a	1,96±0,57	4,92	.002 a < b	2,51±0,53	9,32	< .001 a > d
	PDO ^b	2,29±0,68			2,33±0,54		
	IDO ^c	2,12±0,46			2,27±0,44		
	ETG ^d	2,06±0,39			2,03±0,54		
Health status of parents	Very healthy ^a	2,44±0,57	9,26	< .001 a, b, c, d > e	1,94±0,50	7,13	< .001 a < d, e
	Healthy ^b	2,18±0,68			2,23±0,44		
	Moderate ^c	2,13±0,46			2,20±0,48		
	Unhealthy ^d	2,03±0,39			2,41±0,57		
	Very unhealthy ^e	1,63±0,59			2,50±0,61		

CDO=completely dependent on their family's help; PDO=partially dependent on their family's help; IDO=independent on their family's help; ETG=enough to give help for their family.

[†] Economic status of elderly parents.

Table 4. Correlation between Elder Abuse Perception and Caregiving Stress (N=398)

Variables	Caregiving Stress
	r (p)
Elder abuse perception	-.40 (< .001)

미치는 요인들의 설명력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먼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부양 관련 특성에 따른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독립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부양

스트레스 수준과 노인학대 인식을 가능한 영향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영향요인 중에 결혼상태, 최종학력, 직업, 부양대상, 부양대상 노인과의 관계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Table 5). 변수의 노인학대 인식과 부양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기 전에 연구변수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884~.993 값을 보였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1.01~1.15로 나타나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

대상자의 노인학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f Elder Abuse Perception and Caregiving Stress

(N=398)

Factors		β	t	p	Adj. R ²	F	p
Elder abuse perception	Caregiving stress	-0.36	-8.20	< .001	.30	29.12	< .001
	Marital state (bereaved or divorced) [†]	-0.23	-5.27	< .001			
	Marital state (single) [†]	-0.16	-3.78	< .001			
	Health state of parents	0.20	4.74	< .001			
	Education level [†]	-0.17	-3.95	< .001			
	Economic status of parents	0.10	2.31	.022			
Caregiving stress	Elder abuse perception	-0.40	-9.16	< .001	.24	41.43	< .001
	Economic status of parents	0.26	5.85	< .001			
	Relation with the elder (son-in-law) [†]	0.10	2.68	.008			

[†] Reference categories in dummy variables; Marital state - 'married'; Education level - 'below high school'; Relation with the elder - 'daughter-in-law'

변수로는 부양 스트레스, 결혼상태, 최종학력, 노부모 건강상태, 노부모 경제상태이었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0%였다 ($F=29.12, p<.001$). 대상자의 부양 스트레스 수준에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는 노인학대 인식, 노부모 경제상태, 노부모와의 관계이었으며, 24%의 설명력을 보였다($F=41.43, p<.001$).

논 의

본 연구는 성인 자녀의 일반적 특성과 부양 관련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과 부양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고, 이들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함으로써 노인학대 예방 및 부양 스트레스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은 연령, 결혼상태, 최종학력, 직업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50대에서 노인학대 인식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는데, Park과 Youn (2001) 연구에 의하면 노인학대를 이해하는 전문성 여부와 상관없이 연령에 따라 노인학대를 다르게 지각한다고 하였다. 또한 성인기 중반에 해당되는 50대 대상자들은 경미한 수준의 행위까지도 노인학대로 해석하는 등 학대 범주를 넓게 설정하고 있어 노인학대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고 한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결혼상태가 기혼이고, 직업에서는 주부인 경우 노인학대 인식이 가장 높았다. 이는 대부분의 노인 주부양자는 경제생활을 하지 않는 주부 며느리인 경우가 많으며, 대체로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노인학대 인식 수준이 높다는 Yoo와 Kim (2004) 연구와도 일맥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내재해온 유교주의 영향으로 노부모 부양에 있어 효의식과 가부장적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최종학력에서는 고졸 이하인 경우가 대졸 이상인 경우보다 노인학대 인식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Ko, 2010a; Park, 2004)에서 대상자들의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서의 노인학대 인식이 낮다고 한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Johannesen과 LoGiudice (2013)의 노인학대 체계적 고찰 연구에서는 최종학력은 노인학대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66.8%가 대졸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아 대상자들의 학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상반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향후 교육기간, 교육내용 등 교육과 관련된 변인을 고려한 노인학대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대상자의 대부분이 여성이고(79.6%), 평균 연령대가 40대임을 감안한다면 학력이나 교육에 의한 인식의 차이보다는 부양경험을 통한 인식 차이의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중년여성 대상의 연구를 통해 좀더 구체적인 노인학대 인식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양 스트레스 수준은 연령, 결혼상태, 가족월평균 소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40대에서 부양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또한 이혼이나 사별한 경우, 가족 월평균 소득이 200~200만원 미만인 경우 가장 부양 스트레스가 높았다. 대부분의 40대 성인은 사회적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이 가장 높을 때이다. 하지만 노부모의 부양까지 책임지게 되었을 때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이별이나 사별로 배우자가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지지체계가 없는 상황으로 인해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Johannesen & LoGiudice, 2013; Kwag & Kwon, 2013) 노인부양 스트레스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부양 관련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은 현재 부양 대상자, 노모 연령, 부양기간, 노부모 경제상태, 노부모 건강상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현재 대상자가 노부모 혹

은 노모만 모시고 있을 때가 노부만 모시고 있는 경우보다 노인학대 인식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Kang, Moon과 Park (2011) 연구에서도 노인학대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노인의 성별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여성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문화적 영향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노모의 연령이 80대 이상인 경우와 부양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가 유의하게 노인학대 인식이 높았는데, 이는 노인의 연령이 높아지고 부양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연히 부양자인 대상자는 노인학대 갈등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기회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Fox, 2012; Kang et al., 2011). 즉 노인 부양하는 동안 구체적인 갈등 경험과 문제해결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된 노인학대 상황 사례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로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노부모의 건강상태가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노인학대 인식이 유의하게 가장 낮았는데, 노인의 건강상태 악화와 일상생활능력 저하에 따른 의존성의 증가는 부양자로 하여금 과도한 부양부담으로 이어져 학대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Kang et al., 2011; Yun et al., 2010). 또한 노인학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에서도 노인의 건강상태와 만성질환 여부, 노인의 재정상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Park, 2004; Yun et al., 2010).

부양 관련 특성에 따른 부양 스트레스 수준은 대상자 건강상태, 노부모와의 관계, 현재 부양 대상, 노부모 경제상태, 노부모 건강상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본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부양 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는데, 이는 Yoo와 Kim (2004)의 노인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에 대한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주부양자의 건강상태는 주관적 부양부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였다. 노부모를 돌보는 성인 대부분이 중년으로 노부모와 함께 노화를 경험하게 되며 따라서 건강과 재정적인 감소를 동시에 경험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한층 더할 수 있다. 노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대상자가 사위인 경우가 아들, 딸인 경우보다 부양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가족관계에 따른 노인의 문제인식, 부양부담 등을 연구한 Yoo와 Kim (2004)은 자녀와 며느리들이 노인의 객관적 문제를 사위보다 상대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과 부양 스트레스도 유의하게 적을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노인학대 인식과 부양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부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노인학대 인식이 낮았다. 이는 Kim, Sung과

Sok (2008)의 연구에서 노인 주부양자의 소진감, 부양부담감과 건강상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주부양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중재되지 않는다면 부양자 자신의 생활이 황폐화됨으로써 노인부양의 소홀이나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노인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부양 스트레스 수준, 최종학력, 결혼상태, 노부모 건강상태, 노부모 경제상태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영향 요인은 부양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즉 부양자의 부양 스트레스 수준은 노인학대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력은 가장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Park (2004)은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노인의 과거 아동기 학대 경험과 사회적 지지, 주부양자의 성별, 주부양자와 노인과의 관계, 노인과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Yun 등(2010)은 노인학대에 영향으로 노인의 성별, 연령, 최종학력, 노인의 재정상태와 사회활동 참여, 노인 부양 태도가 유의미한 영향 요인이었다. 노인학대 인식의 영향 요인 연구마다 변인 설정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주부양자의 최종학력이나 주부양자와 노인과의 관계 또는 노부모의 건강상태와 경제상태 등의 요인들이 노인학대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간호학적 측면에서의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 정의와 범위 설정, 측정방법의 체계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Jung과 Yun (2012)에 의하면 노인학대 인식은 곧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 상관이 있으며, 노인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 곧 노인학대 인식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지역사회에서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기초 전략으로 노인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증진시키는 내용의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부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노인학대 인식, 노부모 경제상태, 노부모와의 관계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영향요인은 노인학대 인식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Joo, 2006; Yoo & Kim, 2004)에서 부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최종학력, 주부양자의 건강상태, 경제상태, 노부모와의 가족관계, 부양대상, 가족의 월평균 수입 등인 연구결과와 상이하다. 특히 Joo (2006)는 노인 부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접근은 가족간의 정서적 친밀감을 강조하였다.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심리적 유대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부양 스트레스의 초점을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에 두지 말고 정서를 인지하는 사고과정의 일부로서 인식하도

록 하는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부양 스트레스 영향요인으로 노부모 경제상태가 유의한 영향요인인 만큼 노부모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양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전략으로 노부모 부양에 따른 성인 자녀가 겪는 경제적 부담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의 정책과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를 간호실무와 연구 및 이론 측면에서 살펴보면, 먼저 간호실무 측면에서는 본 연구결과에서 파악된 노인학대 인식과 부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토대로 하여 지역사회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노인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 및 노인 부양 지원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행할 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인 간호사들이 임상이나 지역사회에서 노인 또는 노인부양 대상자들을 간호할 때 이러한 연구결과 변인들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연구 및 이론 측면에서 본 연구는 주부양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인식 및 부양 스트레스를 살펴보았는데, 향후 본 연구를 토대로 하여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간호중재 개발 연구들에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간호학 측면에서의 노인학대 개념 분석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 방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부양을 하는 성인자녀들의 일반적 특성과 부양 관련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과 부양 스트레스 수준을 확인하고, 이들 변수간의 상관관계 및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D시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3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서 대상자의 노인학대 인식과 부양 스트레스 수준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대상자의 노인학대 인식이 높을수록 부양 스트레스 수준은 낮았다. 또한 대상자의 노인학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양 스트레스, 최종학력, 결혼상태, 노부모 건강상태였으며, 대상자의 부양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노인학대 인식, 노부모 경제상태, 노부모와의 관계, 부양 대상, 월평균 소득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인 간호사들이 임상이나 지역사회에서 접하는 노인 또는 노인부양 대상자들에 대한 이해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노인의 주부양자의 노인학대 인식과 부양 스트레스 수준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서로 가장 영향

력이 큰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노인학대 예방 또는 부양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간호 프로그램 개발 시 반드시 두 변수는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준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향후 성인남녀와 노인의 노인학대 인식 및 부양 관련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주부양자와 피부양자간의 인식 차이로 비롯되는 갈등요인을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간호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노인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 및 부양 스트레스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Bang, H. M. (2009).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erception of elder abuse: focused on Mandatory report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ciences*, 13(1), 211-234.
- Dong, X., & Simon, A. A. (2013). Elder abuse as a risk factor for hospitalization in older person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73(10), 911-917.
- Fox, A. W. (2012). Elder abuse. *Medicine, Science and the Law*, 52(3), 128-136.
- Johannesen, M., & LoGiudice, D. (2013). Elder abuse: A systematic review of risk factors in community-dwelling elders. *Age and Ageing*, 42(3), 292-298.
- Joo, S. A. (2006). *Influences of stress from taking care of the elderly on the Intimacy of a fami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Jung, J. Y., & Yun, S. Y. (2012). Elder care related knowledge, attitudes, nursing practice and awareness of elder abuse in geriatric hospital health personnel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14(3), 233-241.
- Kang, W. S., Moon, J. W., & Park, J. S. (2011). The relationship among abuse, self-esteem, ADL, psychosocial factors and depression in the elderly. *Health and Social Science*, 29, 153-183.
- Kim, K. B., Sung, J. M., & Sok, S. H. (2008). A study on the health status, burnout and burden of primary family caregivers of the elderly inpati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9(2), 216-225.
- Ko, J. M. (2010a). A study of nurses' characteristics and their perception of seriousness of elder abus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34(6), 974-982.
- Ko, J. M. (2010b). A comparative study of perceptions and Intension to report in elder abuse between nurses and elderli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4(2), 270-284.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0). *2009 survey on the elder abuse in Korea*. Retrieved December 8, 2011, from <http://www.kihasa.re.kr>
- Kwag, O. G., & Kwon, Y. H. (2013). A study in daily living abilities, self-efficacy and Yangsaeng behavior in elderly men (Yangsaeng: traditional oriental health promo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4*(1), 11-19.
- Kwon, J. D. (2004). A study on the casual factors of elderly abuse.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4*(1), 1-19.
- Lee, K. J., & Lee, H. J. (2007). Factors affecting the perception of the elderly toward elder abuse.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38*, 209-229.
- Lee, Y. J. (1991). *A comparative study of grandmothers and daughter-in-laws: A study of perception and coping strategies according to the older caregiver typ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0). *Statistics of long-term care insurance in the first half of 2010*. Retrieved December 8, 2011, from <http://www.mw.go.kr>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1). *A report of national elder abuse in communities 2011*. Retrieved June 9, 2013, from <http://www.mw.go.kr>
- Moon, A., & Williams, O. (1993). Perceptions of elder abuse and help-seeking patterns among African-American, Caucasian American, and Korean-American elderly women. *The Gerontologist*, *33*(3), 386-395.
- Park, J. H., & Youn, G. H. (2001). Elder abuse in the aging society.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10*, 113-134.
- Park, M. E. (2004). A study of influencing factors on elder abuse of community elderlie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26*, 309-336.
- Song, H. A. (1993). Review on the family's caregiving stress research. *Dongguk University Research*, *23*, 421-440.
- Song, K. S. (2005). *A study on the perceptions of the elderly abu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Suwon.
- Yoo, S. H., & Kim, C. S. (2004).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ffects of caregivers' family relationship to the elderly with dementia: Focusing on problems, burden and institutionalization.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26*, 191-214.
- Yun, H. S., Lee, H., Y., Kwon, J. H., Yoon, J. Y., Park, E. J., Nam, R., et al. (2010). Perception and help-seeking behavior among older persons: Six hypothetical elder mistreatment scenario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0*(1), 221-240.